

## LPGA투어 김세영 '150만 달러 잭팟'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챔피언에 등극한 김세영(26·미래에셋·사진)은 마지막 18번홀에서 극적인 버디 퍼팅을 성공시켜 우승을 차지하며 150만 달러의 상금을 차지했다.

지난 25일 '뉴스1'에 따르면 김세영은 전날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6,556야드)에서 막을 내린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500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김세영은 1라운드부터 단독 선두를 질주하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에 성공했다. 하지만 최종 4라운드에서 우승 경쟁하던 벨리 코다(미국)에게 추격을 당했고 하마터면 승부는 연장으로 이어질 뻔했다.

김세영은 혈이 추격한 것을 모르고 있었고 코다의 스

코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18번홀(파4)에서 김세영이 약 8미터 버디 퍼팅을 성공시켜 우승을 차지했지만 만약 버디 퍼팅이 빗나갔다면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김세영은 우승 후 기자회견에서 "오직 코다만 생각하고, 코다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혈이 17언더파 인 줄 몰랐다."며 "퍼트를 하고 나서 리더보드를 봤는데 혈이 내 바로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세영은 "일부러 내 스코어에 집중하려고 스코어보드를 안 봤다."며 "(스코어보드를 안 보는 것이) 어쩔 때는 도움이 되고 어쩔 때는 안 되는데 이번에는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LPGA투어 최대 우승 상금인 150만 달러가 걸려 있었다. 상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질문에 김세영은 "상금을 이렇게 많이 받은 적은 처음이라 의미가 있다. 좋은 일, 의미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우승으로 김세영은 LPGA투어 통산 10승에 성공했다. 김세영보다 먼저 LPGA투어에서 10승 고지에 오른 한국 선수는 박세리(25승), 박인비(19승), 신지애(11승) 등 3명 뿐이다.

2019시즌 3승을 올린 김세영은 다음 시즌 목표는 4승과 도쿄 올림픽 출전이라고 밝혔다.

## 페더러 - 츠베레프 시범경기 역대 최다 관중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와 알렉산더 츠베레프(독일)의 시범경기에 테니스 사상 최다 관중이 운집했다.

지난 26일 '문화일보'가 ESPN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4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멕시코투우장에서 열린 세계 3위 페더러와 7위 츠베레프의 시범경기를 보기 위해 4만2,517명의 관중이 몰려들어 2010년 벨기에에서 열린 세리나 윌리엄스와 킴 클레이스터르스의 경기에 3만5,681명의 관중이 입장했던 종전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러나 AFP통신은 "이번 시범경기는 국제테니스연맹(ITF)에서 승인하지 않았기에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

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페더러가 츠베레프를 2-1(3-6, 6-4, 6-2)로 꺾었다.

테니스 공식 경기가 개최되는 장소 중 관중 수용 규모가 가장 큰 경기장은 메이저대회 US오픈의 메인 코트인 아서 애시 스타디움으로 2만3,000명이 관전할 수 있다.

ESPN은 "2020년 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페더러와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의 이벤트 매치에서 최다 관중 기록이 다시 쓰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더러와 나달의 경기가 열리는 케이프타운 스타디움의 관중 수용 규모는 5만5,000명이다.

## 손흥민, UEFA '올해의 팀' 공격수 후보 선정



손흥민(27·토트넘·사진)이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등과 함께 유럽축구연맹 UEFA '올해의 팀' 후보에 올랐다.

지난 26일 'SBS'에 따르면 손흥민은 UEFA가 발표한 '올해의 팀' 후보 중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UEFA는 올 한 해 유럽 내 각국의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슈퍼컵 등 국제대회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기량을 토대로 50명의 후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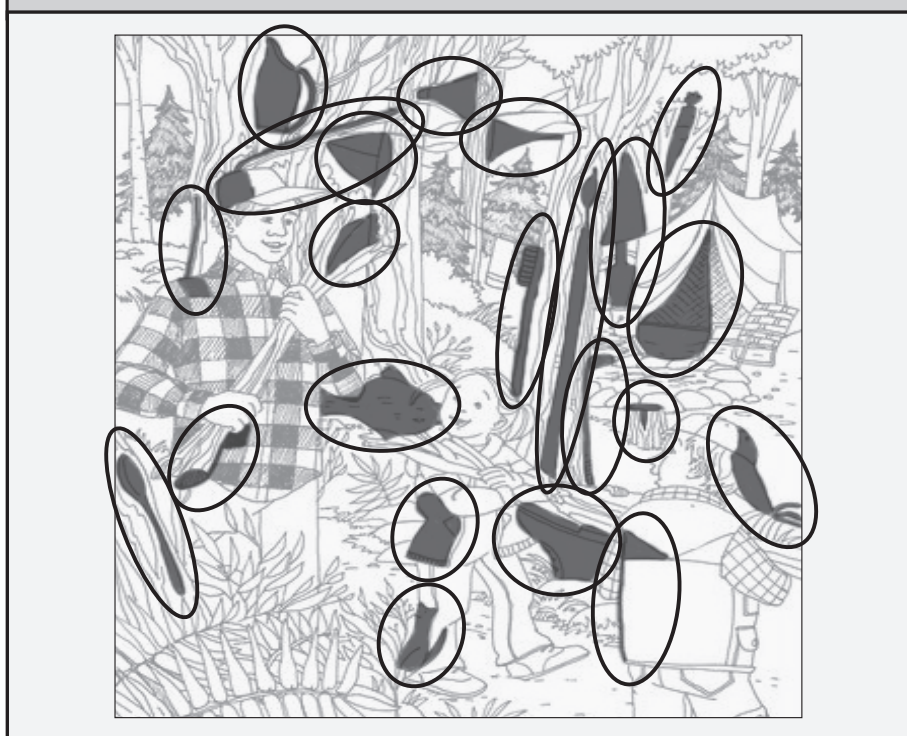
UEFA '올해의 팀' 공격수 후보 손흥민을 포함한 공격수 후보는 15명이다.

손흥민은 올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맹활약했다. 2018-2019시즌 토트넘의 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힘을 보탤고, 현재 진행 중인 2019-2020 시즌엔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경기에서 5골을 폭발해 득점 상위권에 올라 있다.

이런 활약 덕분에 손흥민은 메시, 호날두, 호베르투 피르미누, 무함마드 살라흐(이상 리버풀), 에텐 아자르(레알 마드리드),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 등과 더불어 유럽 프로축구 무대 정상급 공격수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달 세계 축구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인 발롱도르 후보 30명에도 포함된 데 이어 '월드 클래스'로 인정받았다.

UEFA '올해의 팀'은 내년 1월 9일까지 진행되는 팬 투표로 결정되며 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를 직접 뽑는다.

### 숨은그림찾기 정답



### 낱말퍼즐 정답

1 기	독	2 교			3 미	소	
와		4 황	5 공	무	지		6 부
7 집	8 단		인		9 수	10 공	업
	11 금	지				자	
	지				12 온	천	
13 일	교	14 차		15 주		16 주	17 야
정		18 계	란	말	19 이		유
	20 공	부			21 동	창	회